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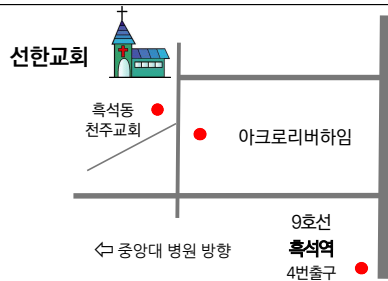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16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9장
교	독	문
교독문		32 (시편 71편)
찬 양 과 경 배		435장 (통일찬송가 492장)
대 표 기 도		유신웅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6장 19~24절
설	교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요예배

네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 (잠3:21-35)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배 안내

9월 6일(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1.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설교 자료만 제공 / 금요일기도회는 영상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현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현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다시 일독하는 분들은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창세기~여호수아]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이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기쁨을 더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함으로 이 때를 지나가고, 승리하기를

가정예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찬송 : ‘우리들이 싸울 것은’ 350장(통 393)

본문 : 요엘 3장 9~13절

말씀 : 메뚜기 재앙 같던 심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회복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희망이 심판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1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다가 번영하는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깔본 이방 나라엔 반대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주가 판결하신다)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2절)

특히 주님은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고난받는 이웃을 자비와 긍휼로 돕긴커녕, 유다의 환난을 이용해 제 이익을 추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유다의 땅을 탐하며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 술을 사 마십”니다.(3절) 예루살렘 보물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을 사로잡아 그리스에 팔기도 했습니다.(5~6절)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나라에 보복의 심판을 하겠다고 버립니다. “민족들아 출발해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12절) 고분고분할 리 없는 교만한 나라를 다루기 위해 전쟁처럼 심판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동원할 군대를 보라. 전에 심판 받았던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들게 하고, 병약한 사람도 용사로 세워서 전진하게 하실 것이다.”(10절)

우리는 이 비전이 이뤄졌다는 걸 압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한 성령의 강력한 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군대가 일어서니 수많은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땅끝에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용사를 통해 하나님 의와 구원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밥벌이 근성과 탐욕의 심보를 쳐서 선교의 창과 성령의 칼 곧 생명 검(劍)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용사다’라고 외치며 나갑시다. “그러는 동안 유다(우리)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교회)도 대대로 그러할 것”입니다.(20절) 또 “원수를 갚아 주는”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자 군대답게 ‘정의로 판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갑시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 나와 씻김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18절)

은혜의 말씀

제목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마6:19-24)
서론	주님께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른 물질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론	1. 기독교인의 물질관 (1) 기독교인에게 큰 시험: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문제 (2)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19,20절). (3)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24절). 2. 교훈 (1) 내가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2) 나는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3) 나는 어디에 더 큰 관심이 있는가? 이땅/하늘? 재물/하나님?
결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대로 바른 물질관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조윤익 장로

매일 Q.T.		순결해야 할 교회	날짜 : 8월 31일
찬양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본문	로마서 16:17-27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는 거짓 교훈을 퍼뜨려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진리를 왜곡시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거짓된 길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고 경계하여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것을 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명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라도 삼키려고 노리고 있으므로 성도는 언제나 악한 꾀계를 경계하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만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취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예언하셨던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주권적인 역사로 그 계획을 실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므로 그 교회를 더욱 굳게 하고 성장시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묵상질문	1. 내 삶에 순전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말씀 순종이 따르는 예배
찬양과 기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새 463/통 518)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2005년 북한 남포 지역에서 102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하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한 대학생이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은 남포시 보안서 소속의 한 안전소조원이 이를 고발했고, 북한 정부는 관려자 102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102명 중 40명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긴 채 남조선 녹화물을 불법 시청했다는 죄목으로 비공개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62명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15관리소로 보내져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2003년 남포시의 한 50대 주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이 주민은 우연히 극동 방송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점차 믿음을 갖게 됐고, 넉 달간 청취한 방송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후 성경을 구해 기록한 내용과 비교하며 5개월간 연구한 끝에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 기쁨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감동을 경험한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아내와 두 아들, 가까운 친척과 친구, 이웃 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50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이런 이들이 후에는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공개 총살형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구류장에 구금된 그들이 정오 고동 소리에 일어나 큰 소리로 주기도를 암송하자, 놀란 보안 요원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지만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세상 권력과 핍박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손해나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경험에 있나요?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26:1~15	
묵상포인트	유다 백성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신앙 생활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귀담아듣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을 살려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박해에도 굽히지 않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온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나요?(4-6절)	
적용하기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떤 것을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마음을 다하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모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날짜 : 9월 4일
찬양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본문	예레미야 27:12-22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나 점치는 자들의 말을 더 좇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하는 자를 멸망 시키시고 그 말을 듣는 자도 몰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릇된 길로 행치 않으며 주를 아는 자들은 죄악에 치우쳐서 달음질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다의 살길임을 계속해서 권면하였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민족에게 환난이 올 것을 경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주의만을 유포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적도 없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백성을 위로하여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들조차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 군대의 제3차 침입 시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귀한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구들이 얼마 동안 바벨론에 있을 것이지만 결국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기대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있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회개를 촉구함	날짜 : 9월 1일
찬양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보라		
본문	예레미야 26:1-15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 리기로 하신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자주 실패하는 우리 인간에게 회개라는 죄 용서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거절하면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성막과 법궤를 두었던 장소입니다(참조, 수18:1). 이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실로는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실로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실로같이 만들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성전의 동쪽 문 어귀에 모였습니다. 당시는 국사법에 관한 재판의 권한이 방백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모이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정죄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유다 방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심문하였습니다. 성도의 길이 어렵고 힘든 또 다른 이유는, 타협의 여지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은 불의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의적 반역이므로 배제해야만 합니다.		
묵상질문	1.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우리아의 종말	날짜 : 9월 2일
찬양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본문	예레미야 26:16-24		
	방백들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수 없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그 중에 장로들은 과거의 예를 들어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과 불공평함이 정치가들과 민중들의 판단에도 미치지 못함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환경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는 기랴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습니다. 그는 방백들의 압력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사람은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핍박을 두려워하여 도피한 다는 것은 올바른 처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아는 여호야김과 방백들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으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보낸 엘라단에 의하여 잡혀 와 살해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및 신학에 박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나는 사역자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회개하지 않는자에게 임하는 심판	날짜 : 9월 3일
찬양	찬송가 330장 둔 밤 쉬 되리니		
본문	예레미야 27:1-11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고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당해야 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맨 것은 줄과 멍에로 속박받는 소처럼 유다가 바벨론의 속박을 받게 될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우매한 자로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매자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줄과 멍에를 목에 맨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목이 닳도록 외쳤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행동은 심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과 싸우지도 않는 마당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다가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정서와 가치관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는 여러 고난에 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진멸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 왕에게 열국과 열 왕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든지 임의대로 세우시고 폐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첩경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 있었나요?		
오늘의 기도			